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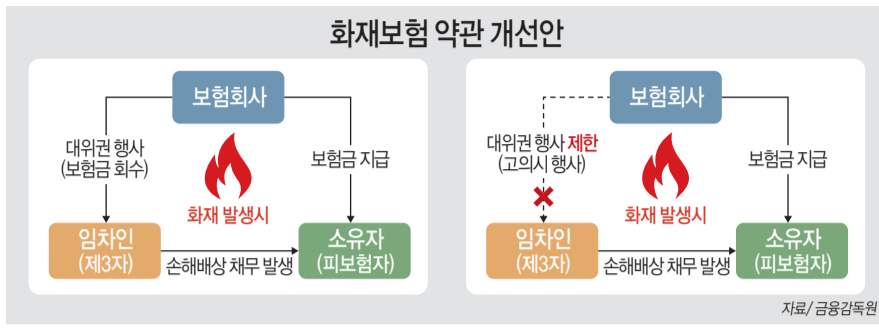
보험료 내는데 임차인이 보상?... 보장사각지대 손본다

금감원,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사 대위권 행사않도록 예외조항
설명서에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관리비 등을 통해 화재보험을 내고 있음에도 피해 보상을 저야 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약관에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대위



권은 임차인 잘못으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범위는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품설명서도 개선한다.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

라도 다음달까지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 설명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개선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보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

에게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회수해왔다.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다.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신한·하나銀, 아프리카 輸銀 신디케이션 참여

10억달러 규모 금융약정 체결
신한銀, 다양한 IB 거래경력 인정 받아
하나銀, 2014년 신디케이션론 참여

신한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10억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 Bank) 신디케이션론에 참여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 무역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UN산하 다국적 금융기관이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51개국이 회원국 또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앙은행 및 국영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무역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역금융 관련 외화 유동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영국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영국·독일 광통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국·스페인 상업용 부동산 금융, 유럽 현지 기업 인수금융 및 금융기관 신디케이션론 참여 등 다양한 IB 거래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9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신디케이션론을 주선한데 이어 이번 금융약정에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과 함께 초청됐다.

하나은행은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주선, 영국 해상풍력 리파이낸싱 주선 등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약정을 비롯해 영국 런던 터널

및 도로건설 사업 주선 등 여러 분야의 거래 경력을 쌓아왔으며,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는 지난 2014년 신디케이션론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관계를 이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약정은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 신디케이션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빠른 심사와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협업 사례로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금융시장에서의 공동 영업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위, 핀테크기업 3개사 지정대리인 지정

기업이 핵심업무 최대 2년 시범운영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네이버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 등 3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총 31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과 코나아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비금융거래 정보를 분석 활용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협업해 네이버 페이 판매현황과 품목, 반품률, 쇼핑등급 등을 활용한다. 코나아이는 애류온캐피탈과 협업해 코나플랫폼 충전과 결제이력, 상품 구매 내역등을 분석해 대출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기반의 금융이 활성화되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대출한도, 금리 등)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 대출신청·심사를 통해 대출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



한국농림협회건설링(KMAC) 한상록 상무(왼쪽)와 농협은행 허옥남 고객행복센터장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에서 2020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10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銀, 10년 연속 우수콜센터 '꽤거'

NH농협은행은 한국농림협회건설링(KMAC)에서 실시한 2020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10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1000여명의 상담사가 일평균 6만 명의 고객과 상담하는 최접점이다.

신규 상담사는 연간 160시간, 기존 상담사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집중 교

육으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상대품질 전수평가 장치'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인간처럼 학습하고 분석해 507만 가지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콜센터AI시스템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고품질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생보협회

김제동 신임 전무이사 선임

생명보험협회는 4일 김제동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데이터담당관(사진)을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전무이사는 1963년 충남 공주출생으로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재무부에 입사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 비은행감독과·금융위 혁신행정과·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사운영정보팀장·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전무이사의 임기는 2023년 6월3일까지 3년이다.

/김희주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KB 그린 웨이브 캠페인'

수익금, 에너지 소외계층에 기부

KB국민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B 그린 웨이브는 종이통장 줄이기와 전기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먼저 '종이통장 미발행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입출금 계좌 신규시 '요구불통장 미발행 이벤트' 참여 고객과 ARS를 통해 '기존 종이통장 사용하지 않기 이벤트' 참여 고객 선착순 각 1만명, 35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KB슬루션(슬기로운 절전 생활)'도 진행한다.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에너지를 아껴 '전력수요자원(DR) 거래시장'에 참여해 판매할 계획이며, 아낀 전기로



얻은 수익금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및 소모품 줄이기'를 실천한다.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친환경 포장, 포장 간소화를 추진한다. 본부에서는 종이 사용량 감축을 위해 태블릿PC로 전자 보고를 하는 등 업무효율화와 스마트 워크를 생활화한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이 환경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